

# 전주시, 수공예산업 발전 잠재력 크다

## 핸드메이드 워크 “강력한 잠재력 갖고 있어”

전주시가 수제작의 가치를 문화와 경제의 가치로 새롭게 창출하는 핸드메이드시티로 나아갈 것을 선언한 가운데, 세계적인 수공예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2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2017\_전주 손길’ 오프닝 프로그램에서 “전주는 지자체 가운데 전통공예 장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로 꼽힌다. 전주는 손으로 일어나갈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날 전주시 수제작 종사

자와 시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오프닝 프로그램에서 ‘문명의 성찰과 손의 가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손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다”면서 “이 가치가 정당하게 실현 되려면 손과 인과론적 관계에 놓인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다름이 주는 것, 나만의 기술로 태어나는 물건과 작품을 의미하는 ‘핸드메이드(Handmade, 수제(手製))’는 전통문화와 예술,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숨 쉬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핸드메이

드 전주’의 슬로건이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한 기본 전제에 대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강병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도 ‘크래프트를 넘어서(Beyond the Craft)’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수제작에 대한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융합 사례를 예로 들며,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든 핸드메이

드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핸드메이드가 아날로그 환경 뿐 아니라 모바일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와 창작, 교육, 생산, 유통서비스로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면서 “격조 높은 시민문화와 질

높고 건강한 수제작 환경 조성으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핸드메이드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해 마련한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2017\_전주 손길’은 이날 오프닝 프로그램에 이어 수제작 및 공예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전주 디자인 크래프트 캠프’로 이어진다.

이 캠프는 전주 수제작 종사자 20명에 대한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으로,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특화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전문 역량 강화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5층에서 진행된다. /김영재 기자



2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장례식장에서 난투극을 벌인 조폭들이 사용한 골프채와 야구방망이 등 동기를 확보했다.

## 전북경찰 조폭과전쟁 선포

### 오대방파·오거리파 조직원 39명 검거

전북경찰이 장례식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지역의 양대 폭력조직 조직원들을 대거 검거한 가운데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나머지 조직원들의 검거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동기를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였던 오대방파와 오거리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4명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39명중 난투극에 직접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도피를 도운 35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 17일 오전 5시 30분경 전주시 효자동 소재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각목 등 위협적인 동기를 들고 상대 조직원과 싸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

에서 주변의 차량을 손괴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장례식장에서 시비가 붙어 집단 난투극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도내의 폭력조직 모두를 소탕할 계획을 전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은 16개 파로 조직원과 그들을 돕는 조력자까지 합치면 500여명 이상의 조직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장례식장 난투극으로 많은 조직원과 추종세력이 구속되면서 전주지역 폭력조직의 세력이 약화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세력약화를 넘어 조직 와해까지 이를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폭력조직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국악 힐링 등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시민들을 위한 전통문화공연을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재수)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전당 야간 공연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지역의 특정 장소 또는 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사다.

전당은 이에 따라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전주시립놀이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전당 상주단체로 활동했던 합작마을문화생산

자조합(대표 김여명)과 함께 이달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국악 힐링’ 공연, ‘머슴열전’, 전주팔경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가 있는 날 첫 행사가 치러지는 22일 공연은 전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핸드메이드시티워크 행사와 맞물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당 야외마당에서 진행되며 야간 공연 활성화 차원에서 모두 저녁 시간대에 진행된다.

첫 행사인 ‘국악힐링’ 공연은 월드 타악과 창작사물놀이,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 거리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신명난 자리를 마련해 줄 전망이다. 이 공연은 3월과 7월, 9월에도 이어지며 4월과 5월에는 창작

연희극 ‘머슴열전’이 전당 야외마당에서 오후 6시 두 차례에 걸쳐 초연된다.

‘머슴열전’은 장애한 기쁨이와 함께 백종날 마을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창작연희 공연으로, 전주시립놀이와 함께 만두래, 장원래 등 전북고유의 민속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6월에는 전주의 8가지 풍경을 테마로 한 창작극악 공연으로, 국악과 전통연희를 리듬음악, 재즈와 함께 재해석한 ‘전주팔경’, 8월에는 7080여고 졸업반’, 10월과 11월에는 대나무로 만든 창작악기와 사물악기, 월드타악기가 어우러진 웅복합 공연 월드 타악 ‘뱀부’가 캐논, 아리랑 등 귀에 익은 명곡을 엄선해 공연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인사 청탁 의혹 압수 수색

전북경찰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 과정에서 청탁과 부정급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부정 청탁에 관한 관련 서류와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인사 과정에서 A씨가 인사상 혜택을 내주는 대가로 부정 급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 수색을 전개한 것으로 전했다. /김민근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 직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주여성전화 오영렬 이사의 ‘동료는 성적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시행했다.

교육에 직접 참여한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희롱 예방으로 바르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과 동료관 존중하는 직장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 전주시, 혁신도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대책반 가동

전주시가 혁신도시 주민들이 최상의 정주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국·과장 등 전주시 간부공무원 30여명은 21일 혁신도시를 방문해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사업현장과 불편지역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혁신도시 시민불편 해소 TF단’을 구성, 운영기로 했다.

혁신도시 시민불편 해소 TF단은 박순종 부시장을 단장으로 교통과 공원녹지, 도로, 문화, 환경, 주차 등 주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각 분야별로 구성된다.

TF단은 앞으로, 혁신도시의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

는 등 주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이날 혁신도시를 방문해 생태통로 조성사업지 등 주요사업현장(6개소)의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광점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들과 함께 현장상황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추가로 발굴하고, 각 부서별로 주민 불편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 중 혁신도시 주민과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 중·장기 추진사업 등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주민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 ‘느림의 미학’... 전주시 ‘슬로시티 학교’ 운영

세계 최초로 도시 전역이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전주시가 느림으로 대표되는 슬로시티 가치 확산에 나선다. 전주시는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주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고품격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슬로시티 전주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슬로시티 전주학교는 슬로시티에 대해 배우는 지식공부가 아닌 국제슬로시티로서 전주가 지닌 특색들을 배우는 교육으로, 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슬로시티 전주학교를 시민들과 청소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슬로시티 전주학교 운영을 위한 첫 걸음으로 21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와 도시관광해설사 등 48명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슬로시티 전주 대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도시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순대현 한국

슬로시티본부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방문순님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오게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했다.

순 이사장은 이날 특강에서 조용히 보고, 느끼고, 느끼게 자연과 조화하는 슬로투어리즘에 대해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기존 한옥마을에 국한됐던 국제슬로시티를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재인증 받았다. 또, 전주만의 슬로시티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슬로시티 제2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